

서울무악 아너스 위성클럽 창립

서울무악RC 원로 전력회원 20명으로 구성



서울무악 아너스 로타리위성클럽 창립식이 지난 4월 26일(목) 12시 인사동에 위치한 선천 한정식집에서 개최됐다.

서울무악 아너스 로타리위성클럽 회원들은 서울무악 로타리클럽의 창립 회원으로 20여년 가까이 활동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휴회 또는 탈회했던 원로 전력회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기 이순동 총재의 패밀리투게더에 맞춰 매주 주회에 참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선배 회원들에게 로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순동 총재, 강석건 서울무악RC 회장과 안중원 7지역대표, 이재찬 지구확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신 윤형섭 서울무악RC 제3대 회장을 아너스 위성클럽의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서울무악RC(회장 강석건)은 2개의 위성클럽 창립 등 금회기 36명의 회원증강으로 115명의 회원을 보유한 클럽으로 발돋움했다.

